

편집 후기



「방재와 보험」이 계간으로 나오는 지라 한여름에 가을을 준비해야 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즈음 이젠 겨울호 발간준비를 시작해야한다.

어떻게 보면 한 계절을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한 계절 손해보는 것 같다는 억지스러운 마음도 든다.

그러나 세월의 빠른 흐름에 대한 미련을 이젠 접어두고 하루가 다르게 정신없이 쏟아지는 각 분야의 정보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여 그중 가장 알찬 부분을 「방재와 보험」 독자들에게 전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卿>

더 높고, 더 빨리, 더 멀리,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세계의 젊음이 펼쳐는 잠실벌의 함성에 귀 기울이며, 잠시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본다.

한순간 작업이 끝나고 지난 과정을 되돌아 보는 것도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아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려니와 다음 작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원고청탁에서 수집까지 애를 태우는 과정이 제1라운드라면 구슬이 열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집필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보기 쉽고, 모양새 있게 「방재와 보험」에 심는 작업이 제2라운드, 인쇄를 거쳐 독자의 평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제3라운드를 마쳐야 하는 전과정이 시간이 해결한다는 느긋한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 긴장의 연속이다.

원고가 펑크나고 마감일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된 원고도 있으나 바쁘신 중에도 육고를 주신 집필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풍요의 계절에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길 기원하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폰트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010) 본 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0-8156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8/가을호 계간 / 비매품 <통권 제39호>

등록/마- 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1988년 10월 1일
인쇄/1988년 9월 25일
발행겸 편집인/이상규
인쇄인/성진문화인쇄/강재수
사진식자/창미문화사
발행처/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직통 780-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